



주간통일정세 2009-09(2009.02.23~03.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0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자강도 만포시 시찰(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만포시의 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타이어)공장, 만포방사공장과 식당인 만포각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만포제련소에서 공장 근로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와 함께 생산공정의 기술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밝히고 제련소의 당면 과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한편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제련의 실수율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또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인 만포방사공장과 식당인 만포각을 돌아보는 동시에 만포시 도시경영실태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도시를 잘 조성했다고 말했다”고 언급
-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가 수행
- 김 위원장은 자강도 만포시 방문에 앞서 함경북도 청진시와 생모인 김정숙의 고향인 회령시 등을 장기간 시찰

##### ● 김정일, 함북 회령 방문(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회령시의 오산덕 김정숙 동상을 둘러보고 회령기초식품공장, 회령대성담배공장, 중앙은행 회령지점, 김기송회령제1중학교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생모인 김정숙 동상에 경의를 표시한 뒤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심화될수록 혁명전통 교양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며 각급 당 조직과 근로단체 조직에서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
- 그는 이어 회령기초식품공장에선 “생산을 부단히 늘리고 생산된 기초식품을 제때에 공급”할 것을 지시하고 회령대성담배공장에선 이 공장 담배가 북한 군인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지적, “높은 원군정신을 안고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칠 것을 강조
- 이번 시찰에는 홍석형 함북도 당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리재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北 ‘담배 피우는 김정일’ 사진 공개(2/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여전히 큰 관심사인 가운데 함경북도에서 1주일 가까이 공개활동중인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이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회령시를 두루 시찰하는 사진을 무려 132장 보도하면서 그가 회령대성담배공장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피우는 사진 2장과 한 개비를 오른손에 쥔 사진 1장을 공개
  - 김 위원장은 과거 애연가로 알려졌다지만 2001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밝혔으며, “담배는 심장을 겨누는 총과 같다”고 금연 필요성을 강조했었음.
  
- **김정일, 함북 무산광산 현지지도(2/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기업소의 사적물을 둘러보고 광산들이 한눈에 보이는 철산봉에 올라 기업소 전경을 본 뒤 탐사를 통해 더 많은 예비광량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채굴 대책들을 면밀히 세울 것을 지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벽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보도
  
- **獨인론, 北노동당 김정일 뇌졸중 공지(2/26, 쥐트도이체 차이퉁)**
  - 북한 노동당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사실을 간부들에게 공지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6일 보도
  - 이 신문은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도쿄 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밝히지 않은 채 “조선노동당은 수일 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2008년 8월 뇌졸중에 대해 간부들에게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병세를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
  - 이 신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2월 24일 생모의 고향인 회령을 찾은 데 이어 수일 내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최북동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
  
- **CIA국장, 김정일 여전히 북한 통치(2/25,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5일 밝힘. 지난 19일 취임한 파네타 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



## 나. 정치 관련

### ● 노동신문, 3·1절을 ‘수령 영도력’ 찬양에 활용(3/1,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민족의 자주적 기상을 떨치며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자’라는 제목의 기념 사설에서 3·1운동은 “인민대중이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며, 민족 자체의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피의 교훈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찬양
- 신문은 이어 “3·1 인민봉기자들이 피흘려 쓰러지면서 절규하던 민족자주권 실현을 위한 투쟁은 오늘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며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 반대 투쟁과 반미, 반일 투쟁을 선동, 신문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은 민족자주”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총결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선 “역사적인 3·1인민봉기는 평양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반일 시위투쟁을 봉화로 하여 시작됐다”며 이 봉기는 “삼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번져갔다고 3·1운동의 ‘평양 발원’을 거듭 주장

### ● 北, 위성발사 ‘유엔결의 위반’ 인정 불가(2/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또 하나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평화적인 과학연구활동”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결의’를 인정해본 적도 없고 그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적도 없다”고 언급
- 이어 남측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일 “‘제재’니 ‘대응타격’이니 ‘요격’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 폭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대응타격’을 운운하며 신성한 우리의 조국강토를 티끌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무자비한 반격의 불벼락을 들썩우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우리 군대는 국지전이건 전면전이건 모든 상황에 대비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주장
-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군대는 이미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이고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남조선선 호전광들의 일거일동을 시야에 넣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것이 어떻게 즉시에 실천으로 옮겨지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호전광들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힘.

### ● 범민련, ‘6·15-10·4 선언이행 운동기간’ 설정(2/28,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28일 남과 북, 해외 본부 사이에 ‘모



사전송'(팩스)으로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활동을 결산하고 올해 활동방향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올해 6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를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통일은 통일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등의 철폐와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친북단체들의 합법화 실현을 위한 투쟁에 범민련이 앞장설 것을 강조

- 범민련은 “앞으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바라는 단체와 인사들과는 주의 주장과 소속의 차이를 초월”해 함께 노력할 것과 “보다 적극적인 3자 연대”로 전 민족적 운동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통신은 보도

\* 범민련은 1990년 8월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제1회 범민족대회에서 창립키로 결의된 후 해외(1990.12), 북측(1991.1), 남측(1995.2)에서 차례로 결성됐으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음.

#### ● 北, “미군 도발행위”…南에 통지문(2/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는 28일 남측 군부에 통지문을 보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지문은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정세를 더욱 긴장 격화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 아무때나 들어나와 돌아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지적

#### ● 北, 만경대 가문 포부는 강성대국(2/28, 조선중앙방송; 2/26, 노동신문)

- 28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26일 2면 전면에 게재한 ‘휘황찬란한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형직 선생님께서로부터 아버지 수령님(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대에 이르는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지향과 포부는 무궁번영할 강성대국”이었다고 주장,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 ‘가문’과 북한이 2012년 달성을 목표로 내건 ‘강성대국’을 북한의 미래와 연결을 시킴.
- 신문은 특히 “만경대 위인들처럼 3대를 이어 한 나라, 한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역사의 숭고한 길을 역세게 걸어오신 열혈 혁명가, 열혈 애국자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만경대 3대 위인의 애국의 전통이 피줄기처럼 관통되어 있고 끝없이 창창한 선군혁명의 미래와 잇닿



은 우리의 내일”이라고 부연

● 김명길, 北 미사일발사 예정대로 발사(2/27, 연합)

-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면서 “시점만 남았다”고 밝힘.
- 김 공사는 이날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년 국제학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애틀랜타에서 개최한 ‘북핵 6자회담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 참석한 뒤 회의장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
- 김 공사는 ‘미사일 발사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언제 발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점은 두고봐야 안다”고 답변
- 김 공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로서, 보편적 성격의 것이며, 우리는 자주적 권리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또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비판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결의에 대해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결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답변
- 북핵 문제와 관련, 김 공사는 “북한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력, 화력,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원이 제한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핵 에너지가 필요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北, 4차 선동원대회 개최(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26일 개막된 제4차 ‘전국선동원대회’에서 선전·선동원들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당원·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최 비서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회의 보고자로 나서 선전·선동원들의 첫째가는 사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 세우고 선군시대의 순결한 인간, 참다운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 노동당 중앙위도 이번 대회에 축하문을 보내 선전·선동원들이 “전체 인민을 견결한 혁명가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며 선군조선의 제1국력인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 축하문은 또 선전·선동원들이 경제분야에서 선동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적인 제국주의 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 풍조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
- 이날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중린·김기남 노



동당 비서, 근로단체,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간부와 중앙 및 지방의 당 사상부문 간부들, 모범 선동원들이 참석

● **北조평통, 대응타격론에 아성까지도 초토화(2/2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사지점 대응 타격’ 발언 등을 비난하며 “그 무슨 ‘대응 타격’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신성한 우리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린다면 도발자들은 물론 그 아성까지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
-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따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재” 경고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권리”이므로 “시비할 것이 못된다”고 일축하고 “인공위성인지 뭇인지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무엇이 하늘로 날아오르는가를 (눈)여겨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노동신문, 모든 공간 철저히 차단해야(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반동적 사상공세를 혁명적 사상공세로’라는 제목의 논설과 함께 ‘위험한 독소’, ‘길을 열어주면 노예가 된다’,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전쟁’, ‘어리석은 망상’ 등의 글을 무더기로 게재하며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해독성’을 강조하는 글을 여러 건 신고 부르주아 사상문화가 북한 사회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할 것을 촉구
- 이들 글은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씩어빠진 제국주의 문화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책동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폭로 단죄하고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논설은 “제국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 ‘문화의 무국경론’을 제창하며 저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폐쇄사회’나 ‘독재국가’니 하는 험담을 퍼부으며 문호개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개방 요구를 일축하고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허용한다면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을 변질시키고 파괴”시켜 결국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고 경계했다.
- ‘위험한 독소’라는 글은 “사람들을 개인의 부귀향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사상적 독소가 바로 부르주아 사상문화”라고 주장하고, 이에 오염되면 “혁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날라리풍에 물젖어 동물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된다고 지적



- **美보고서, ‘김정일 절대적 통치’ 언급(2/26, 연합뉴스)**

  - 미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absolute rule) 하에 있는 독재국가’라고 규정,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는 독재를 애국주의로 정당화시키고,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신격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복종하고 지도부에 충성을 하도록 고안된 정치. 이념적 세뇌화에 노출돼 있다고 소개
  
- **北, 우주진출 정당(2/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평화적인 우주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란의 인공위성 오미드 발사 성공 사례를 거론,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진출과 이용정책은 시대발전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이며, 이를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거듭 주장
  
- **조국전선 중앙위 회의 개최(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24일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들인 강련학·조충한, 서기국장 김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 즈음해 주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음.
  
- **北 위성발사 준비…1~2주면 완료될 듯(2/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은 24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해 대포동 2호 발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함.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현재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 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北, 현인택장관 임명 거듭 비난(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내려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임명은 “우리(북한)와의 전면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며 “북남관계는 이제 더 이상 바로잡을 여지조차 없다”면서 “결판을 보고야 말 우리의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



- **北, 한국제품 통제…방첩투쟁 차원(2/24, 열린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최근 한국 제품의 반입을 통제하도록 세관에 지시했다고 ‘열린북한통신’이 24일 주장,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이 소식지는 “지난 17일 입수한 북한 내부소식에 의하면 북한 세관총국은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관계없이 한국 제품의 국내 반입을 무조건 통제할 데 대한 지시를 국경지역의 모든 세관들에 공식 하달했다고 한다”고 보도, 이 지시에는 한국 물품 반입으로 적발될 경우 엄중처리한다는 경고도 포함
  
- **전국농업열성자회의 개최(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가 23일 김영일 내각 총리와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김창식 농업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이 회의에선 고 김일성 주석의 1978년 1월 전국농업대회 육성연설을 청취
  
- **北, 선거로 일심단결 과시(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국 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북한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데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면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공화국(북한) 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공장 부산물 활용 소비품 증산에 박차(2/28, 조선신보)**
  - 북한이 폐기물과 유헴자재 등을 활용해 만드는 ‘8월3일(8.3)인민소비품’의 생산이 가장 활발했던 1993년, 1994년 수준을 넘는 것을 목표로 8.3소비품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보도
  - 신문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경우 2008년 8.3소비품 생산액 과제를 2007년에 비해 184%로, 유통액 과제는 246%로 초과 수행했으며, 올해 1월엔 작년 1월에 비해 생산액 계획은 193%, 유통액 계획은 174%로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
  - 신문은 올해 25년째로 접어든 8.3소비품의 “가짓수는 해마다 1.2~1.3배의 수준에서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 제품 가짓수는 1984년에 비해 약 19배인 수천종에 이른다고 소개



● **北, 컴퓨터 장기 프로그램 개발(2/28, 통일신보)**

- 북한은 “형태와 감각이 부족한 컴퓨터 장기의 치명적 결함”을 극복한 장기 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램 ‘류경 3.0’을 개발했다고 통일신보 28일 보도,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 화면과 장기 쪽의 움직임 효과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또 정확한 국면평가와 다양한 후보 수 생성, 세련된 수 탐색을 비롯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한 여러 가지 전술적 기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초기판 배치 상태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갖추고 있다고 보도

● **北, 비료부족에 농사 근심 그득(2/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이라는 이례적 제목의 기사에서 식량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로 비료부족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소개
- 통신은 “지금 국가에서는 올해에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하나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 노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업성이 선진 영농기술 등을 실물로 보여주는 다매체편집물(씨디)을 만들어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들에 배포한 사실을 예시, “또한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다수확 품종들과 해당 지대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고 보도
- 이어 통신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농산과 축산을 배합해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다”며 “농장들에서는 니탄과 부식토와 같은 부식질 재료들로 흙보산비료, 생물활성퇴비, 유기질 복합비료를 생산해 논밭에 내고 있다”고 언급

● **평양제1백화점 매출 증가세(2/26,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 제1백화점의 매출이 지난해는 2007년에 비해 150%, 올해 1월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5%로 증가하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보도
- 신문은 이 백화점의 매출 급증 이유에 대해 “(북한) 전국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이 활성화돼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이 백화점은 다른 상업기관과 달리 도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고 북한 내 1천600여개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직거래를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 **북한도 모유수유 운동 펼쳐(2/24, 조선신보)**

- 북한이 “아기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모유 수유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북한의 보건성이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한 ‘어머니젓먹이기위원회’는 “여러가지 선전물을 작성, 보급하는 한편 병원 일군들을 위한 강습도 조직”하고 있으며, 강습에서는 임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모유의 유익함을 홍보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 **북한 전력 송·배전망 교체 55-75억불 소요(2/26, 연합)**

-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55억-75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데이비드 본 히펠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년 국제학 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개최하는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관한 논문에서 전망

● **조선펀드, 5천만 달러 대북투자 유치 추진(2/24, 블룸버그통신; 연합)**

- 대북투자펀드인 ‘조선펀드(ChosunFund)’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투자 유치에 나섰다. 조선펀드 설립자인 영국인 사업가 콜린 맥아스킬(69)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선펀드가 광산,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북한 파트너들과 합작할 것이라고 밝힘.
- 맥아스킬은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 경영기술이 부족하다면서 1987년부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주장

● **WFP, 대북지원 비축식량 고갈 위기(2/24,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어린이, 임신부, 수유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마저 3월이면 비축식량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WFP의 제니퍼 파멜리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초 620만 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으나 지원식량과 자금의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다가 한달 뒤 완전 중단했다고 설명

● **북한, 작년 대중무역액·적자 최대(2/23, 상무보통계)**

- 북한의 대중(對中)무역 의존도가 커지면서 2008년도 북·중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도 함께 최고치를 기록, 23일 중국 해관과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총액은 27억8천만 달러로 2007년 19억7천만 달러에 비해 4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중관계층 변화갈망…민간교류 지원해야(2/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중관계층은 이념에 대한 무관심 속에 변화 욕구가 강하므로 이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 민간교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주장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이 전문가는 “북한에서 만나본 중간층 관리나 주민들은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외부세계와 연계되기를 바라는 등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며 “미국 국무부가 나서 대북 민간교류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北 ‘3남후계’ 전역 확산…당국 단속 無(2/24, 열린북한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운의 후계자 낙점 소식이 북한 사회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은 24일 북한 내부소식통들을 인용 보도
  - 한 소식통은 “북한 노동당의 도, 시, 군 당위원회 부장 이상 간부들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美 6자회담 수석대표에 성 김(2/27, 연합)**
  - 한국계인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뒤를 이어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게 되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6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 김 특사가 앞으로 6자회담 대표단을 이끌게 되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협력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발표
  - 김 특사는 지난 2006년 여름부터 2년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으며, 작년 9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사급 북핵특사에 취임

나. 북·미 관계

- **보즈워스 美대북특사 7~8일째 방한(3/1, 연합)**
  - 외교 소식통은 1일 “보즈워스 대사가 중국과 일본을 들른 뒤 7일이나 8일째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중·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 측 인사들과 북한 미사일 및 핵문제에 대해 협의한 뒤 10일께 떠날 것”이라고 언급

- 보즈워스 특사는 주말에는 과거 주한대사 시절 친분이 있던 인사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9일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청와대 인사 등과 차례로 면담할 예정

#### ● 美, 괌에 스텔스폭격기 4대 배치(2/28, 연합)

-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폭격기’를 괌 기지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미 동부시간) 확인
-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미 공군이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4대를 배치중이라면서 이들은 현재 괌에 배치돼 있는 B-52 폭격기 6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고 밝힘.

#### ● 美 북한전문가 일행 방북 후 귀국길(2/28, 연합)

- 2월 24일 방북 길에 올랐던 미국의 민간 북한 전문가 일행이 북한 방문일정을 마치고 28일 베이징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옴.
- 핵군축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공동소장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매우 유익했다”며 “미국에 돌아가면 이번 방북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답변

#### ● 美, 北위성발사 유엔결의위반 재확인(2/27,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의 위성발사 움직임과 관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위성발사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위성발사가 미사일 발사와 매우 유사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와 다른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힐 차관보가 말한 대로 위성발사는 분명히 위반”이라고 강조

#### ● 美, 北마약거래에서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2/27,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2008년에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거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선 소규모 마약거래는 계속되고 있다지만 북한과 연관된 마약거래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



다. 북·중 관계

● 北, 中, 고위급 왕래·협력 강화 제의(2/28, 조선중앙통신; 2/26, 조선중앙방송)

-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리광호 당 중앙위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고위급 왕래와 각 부문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통신에 따르면 자 주석은 지난 25일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중국·북한)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밝힘.
- 그는 양국 간 “고위급 왕래를 밀접히 해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과 경제무역협조, 두 나라 당, 정부, 군대, 사회단체 등 각 부문의 교류와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의 협조, 국제문제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
- 앞서 조선중앙방송도 26일 자칭린 주석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고 보도

● 北中 화물선 충돌, 중국 화물선 침몰(2/27,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 화물선이 27일 밤 11시40분(현지시각) 중국 산둥(山東)성 룡청(榮成)시 앞바다에서 충돌해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으나 선원 20명은 모두 구조, 이번에 중국 선박과 충돌한 북한 화물선 춘지2호는 북한 천지해운공사 소속으로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북한 남포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

라. 북·러 관계

● 北, 억류 러시아 화물선 석방(2/27, 미국의소리방송)

- ‘2월 17일 북한 무수단곶 근처 동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러시아 화물선이 26일 풀려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관영 ‘리아(RIA) 노보스티’를 인용, 27일 보도
- 러시아영사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인 선장과 선원 15명에게 사과했으며, 선박 소속사인 아무르해운의 대변인은 북한이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억류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보도
- \* 옴스키 122호는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작업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무수단리 인근 해역을 통해 러시아로 향하다 북한 해군에 억류돼 김책항에서 조사를 받았음.



마. 북·일 관계

- **日, 대포동미사일 자국 향할시 요격검토(2/27, 산케이신문)**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일본쪽으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용,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 요격은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이용하게 되며 요격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이 시행
  - 해상자위대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인 곤고호(2007년), 초카이호(2008년)를 배치, 항공자위대도 2007년 3월에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 PAC3를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3월 까지 수도권 4곳에 배치했으며 2월 26일에는 기후(岐阜)기지에도 배치함.
  -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우선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선 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게 되며 여기서 요격에 실패할 경우 지상의 PAC3에서 추가 요격에 나서게 됨.

바. 기타외교 관계

- **베트남 회사, 김정일에 선물(2/26, 조선중앙방송)**
  - 베트남의 비에텔 총회사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3. 대남정세

- **6·15남북위, 3·1절 공동 결의문 발표(3/1,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 측 위원회는 1일 공동으로 3·1절 90주년 기념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남북관계는 정치 대결을 넘어 군사 충돌의 위험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의의 결의문은 “3·1 독립운동 정신에 유감없이 발현돼 있는 겨레의 자주정신을 올바로 계승해 남북분단과 대결 시대를 끝내고 화해협력의 6·15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6·15 공동선언에서 10·4 공동선언 기간까지를 기념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과 연대 활동을 전국 차원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 개성제품 공동상표 등록신청(2/26, 통일부)**
  -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공동 브랜드 ‘피스웍스(PEACEWORKS)’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을 했다고 26일 발표

-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달 특허청에 ‘피스웍스’ 상표 출원 신청을 했다”며 “등록 절차가 연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동상표를 정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피스웍스’는 남북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나무를 형상화한 로고와 함께 사용된다고 통일부는 설명
- 공동 브랜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선택 사항으로, 널리 알려진 자체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은 기존 이름을 계속 쓰게 될 것으로 보임.

● 통일부, 北미사일 이유 비닐지원 보류(2/25, 연합)

- 대북 민간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
- 북민협 소속 한 단체 관계자는 25일 “비닐 지원 사업을 통일부측과 협의하던 중 지난 23일 통일부 관계자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들어 1,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고 밝힘.

● 북,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2/24, 연합)

- 북한이 24일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 군 당국이 경위를 파악, 국방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통상적인 동계 훈련 중 하나로 도발 징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美대북특사 2일부터 한·중·일 방문(3/1)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28일 공식 밝혔음.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즈워스 특사가 내달 2일 워싱턴을 출발해 베이징, 도쿄, 서울을 방문, 북한 핵문제와 관련 고위 관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국무부는 또 보즈워스 특사가 이와 별도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러시아 측 관계자와도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방문 기간에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문제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 동안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계획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지만 ‘깜짝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베이징 등에서 북측 6자회담 관계자들과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됨.
- 이와 관련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만남 여부는) 순방지에서의 협의결과와 북한의 반응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음. 보즈워스 특사는 앞서 26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했음. 보즈워스 특사의 이번 순방에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뒤를 이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게 될 성 김 북핵특사가 동행하며, 회담결과는 클린턴 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 ● 美-러 외교장관, 北미사일 전화논의(2/28)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여겨지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
-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음. 이날 전화는 클린턴 장관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이날 통화는 전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클린턴 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 외교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클린턴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진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들은 또 최근의 양국 관계와 내달 1~2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가자지구 재건 국제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무부가 전했다. 클린턴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가자지구 재건 회의 때 처음 대면하게 됨.

#### ● 北-러, 북핵 6자회담 협의(2/27)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 김용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27일 ‘북핵’ 6자 회담 등을 서로 협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두 사람이 동북아시아의 안정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두루 얘기를 나눴다”며 “한반도 핵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과 유엔에서의 상호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 ● 美 6자회담 수석대표에 성 김(2/27)

- 한국계인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뒤를 이어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게 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6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 김 특사가 앞으로 6자회담 대표단을 이끌게 되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와 협력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는 등 일상적인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김 특사는 지난 2006년 여름부터 2년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으며, 작년 9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사급 북핵특사에 취임했음. 그는 북미 뉴욕채널 미국측 대표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실무팀장을 맡는 등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맡아왔음.
- 아이비리그인 펜실베이니아대 출신인 그는 검사로 활동하다 외교관으로 전직한 한인 1.5세로 한국과 중국, 일본 주재 미국 공관에서 근무한 아시아 통으로 꼽힘. 김 특사는 특히 한국과장을 맡은 뒤 약 2년간 힐 차관보와 호흡을 맞춰 북핵 1, 2단계 합의와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 그는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실무팀을 이끌고 여러 차례 영변을 방문해 불능화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며,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미국 관리를 대표해 참석했음.

#### ● “北,中에 6자회담 재개의사 전달”(2/26)

- 북한이 지난주 방북한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6자회담 재개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수의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26일 “우 부부장이 지난 19일께 방북해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난관에 봉착한 6자회담 진전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 소식통은 “우 부부장의 방북 목적은 6자회담의 진전 방안과 핵 검증의정서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면서 “북한은 인공위성(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위성발사와 상관없이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외교당국은 우 부부장의 방북 목적에 대해 6자회담의 진전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었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다음날인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 의지를 갖고 있음이 확인됐고 각국도 6자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내달 중에 각국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머지않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 페리 “북핵협상 ‘리셋버튼’ 누를 때”(2/23)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3일 “6자회담이 이제까지 유용했고 앞으로도 유용하겠지만 문제해결은 하지 못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리셋버튼’을 누를 때”라고 주장했다.
-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학술대회 제4세션에서 ‘한반도의 평화 실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 새 정부는 북핵 관련 첫번째 조치로서 보즈워스 전 대사를 대북특사로 임명했으며 이는 리셋버튼을 누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고 1998년 대북정책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내가 당면했던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보즈워스 대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즈워스 특사에게 ▲북핵 정책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와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구할 것 ▲핵포기의 인센티브와 핵개발의 대가를 분명히 할 것 ▲현재의 북한 정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협상에 임할 것 등 3가지를 권고했음.
-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내가 대북정책조정관이던 시절 평양에 가기 전에 수개월간 한국·일본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전략을 함께 수립했고 6자회담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중국·러시아와 만나 그들의 견해를 들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의 참가국들간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강력한 군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시의적절한 이념’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이념으로, 진척이 있으려면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단순한 한반도의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의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발표자로 나선 현홍주 전 주미 한국대사는 “6자회담과 북미 양자협상에서 북미회담이 늘어날수록 6자회담의 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좀더 건설적인 대화를 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 현 전 대사는 또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테러에 대응하고자 이라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동북아시아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미국 신임 정부는 북한 문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을 오바마 정부에 기대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모든 핵 능력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학술대회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인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음.

## 나. 미·북 관계

### ● 美 괌에 스텔스폭격기 4대 배치(3/1)

-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보이지 않는 폭격기’를 괌 기지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28일(미 동부시간) 확인됐음.
-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미 공군이 태평양 지역 전진기지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4대를 배치중이라면서 이들은 현재 괌에 배치돼 있는 B-52 폭격기 6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이번 B-2 폭격기 배치는 미 공군이 괌 기지에 폭격기를 순환배치하는 일환이라면서 4개월 정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하지만,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고, 한국과 미국 등은 이를 로켓이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점에 미군이 스텔스 폭격기를 전진배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 더욱이 미국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북한이 이를 발사하면 유엔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 이를 요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B-2 폭격기의 괌 배치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겹친다는 점에서 대북 경고 차원에서 B-2 폭격기가 이번 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번에 괌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되는 B-2 폭



격기는 미주리주 화이트먼공군기지에 있는 13폭격비행대대 소속. B-2는 노드롭그루먼사가 지난 1987년 개발, 1993년부터 실전에 배치했으며 미 공군은 현재 20대를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1대를 시험운행에 활용하고 있음. B-2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 적진 깊숙이 침투,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최대속도 마하 0.9, 무장탑재능력 약22톤, 최대비행고도 5만피트(1만5천m). 중간급유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40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승무원 2명, 대당 가격은 12억달러(1998년 기준)에 달함.

### ● 美 북한전문가 일행 방북 마쳐(2/28)

- 지난 24일 방북 길에 올랐던 미국의 민간 북한 전문가 일행이 북한 방문일정을 마치고 28일 베이징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방북에 대해 “매우 유익했다”고만 짧게 언급할 뿐 자세한 방북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핵군축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공동소장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매우 유익했다”며 “미국에 돌아가면 이번 방북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음.
- 헤커 박사와 함께 방문한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도 방북단 일행이 방북 기간 많은 인사와 대화를 나눴다며 “매우 좋은 여행이었다”고만 짧게 언급했음.
- 이번 방북에는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국무부 전 한국과장도 동행했음. 이들의 방북은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 활동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마련된 북·미간 민간 교류였음.

### ● “北 마약거래,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2/28)

-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무부가 27일 밝혔음.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2008년에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거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선 소규모 마약거래는 계속되고 있다지만 북한과 연관된 마약거래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 “지난 6년간 북한당국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거래 사례는 없지만 현재로선 당국이 후원하는 마약거래가 확실히 중단됐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면서 “북한 당국이 개입된 마약거래가 중단됐거나 계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음.



국무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 만들어진 위조담배가 대규모로 거래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위조담배범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졌음을 추정케 하는 한편, 북한이 외화수입원으로 위험도가 높은 마약거래를,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담배 무역으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음.

- 이어 국무부는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100달러권 위조화폐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한국의 부산에서 적발되는 등 여러 나라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면서 슈퍼노트는 유일하게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위폐들이 한동안 유통된 것인지 최근에 발행된 새로운 지폐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 돈세탁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기관과 관리들이 마약거래나 불법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고 일선 회사들을 통해 위조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등 불법활동에 개입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10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은 가장 중요한 점들이 결여돼 있고, 집행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이어 작년 10월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은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저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한국은 마약남용문제가 없다는 명성 때문에 마약거래업자들이 마약을 옮겨오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최대 항구 중 하나인 부산은 한국을 불법적인 마약 선적의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 보고서는 한국의 돈세탁 문제에 대해 “한국은 국제금융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매력적인 장소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돈세탁은 국내범죄활동이나 부패, 뇌물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음.
-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등이 돈세탁 우려국가로 분류했음.

#### ● 美, 北위성발사 유엔결의위반 재확인(2/28)

-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의 위성발사 움직임과 관련,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발사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날 위성발사가 미사일 발사와 매우 유사하고 유엔 결의안 1718호와 다른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힐 차관보가 말한 대로 위성발사는 분명히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대사가 지난 26일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불법행위도 중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대이란 정책 재검토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이란에 대한 정책을 모든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드 대변인은 이어 “핵문제는 우리가 매우 우려하는 사항이며 이 문제는 재검토 과정에서 다루질 것”이라면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해 밝힌 기존 입장외에 현재 다른 것은 없다”며 “이란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北미사일 발사시 격추할 준비돼 있어”(2/27)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이를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이 26일 밝혔다. 북한은 또 현재 미사일 발사 준비 예비단계에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많다고 키팅 사령관은 내다봤음.
- 키팅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 ABC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응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나는 내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북한이 발사 시도를 할 가능성과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60대40, 70대30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발사 준비 예비단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장비이동이 (발사장소 주변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발사할 가능성이,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많다”고 평가했음.
- 키팅 사령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군은 구축함, 이지스 순양함, 레이더, 우주공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등 최소한 5가지 다른 시스템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키팅사령관은 아직 군함들을 요격지점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일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초기에 아주 호된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힐 “美, 북한정권 붕괴 의도 없어”(2/27)

-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우려하고 후계자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는 없다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강조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4개국 순방결과를 기자들



에게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힐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순방기간 북한의 후계문제를 언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장관의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최근 예상롭지 않은 행동을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진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지,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지만 후계 문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힐 차관보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신임 대북특사가 내주 초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으려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밝혔음.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북한에 갈 것”이라면서도 이번 순방 기간에 방북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덧붙였다.
-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들에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것은 이웃을 만들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노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음. 그는 또 “클린턴 장관이 방한 당시 밝혔듯이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뜻이 없다”며 “지금은 한국과의 양자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다질 때”라고 말했음.

#### ● “北미사일 발사하면 對美정책 변화의미”(2/27)

- 북한은 작년 10월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해왔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현재의 대미(對美)접근법을 바꾸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최근 분석했음.
- 또 ODNI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 시기는 내달 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임기 개시 때나 춘계 한미 연합훈련 시점에 맞출 것이라고 전망.
- 미국 정부기관들에게 각종 새로운 정보 및 분석내용을 제공하는 ODNI 산하 ‘오픈 소스 센터’는 북한이 지난 24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훨씬 전인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언론들이 가까운 시일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음.
- ‘오픈소스센터’는 지난 7일 북한 노동신문이 우주연구 및 개발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인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북한 언론



들은 이와 유사한 주장을 3번이나 한 바 있다면서 “(인공위성을 빙자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예상되는 국제적 비난에 대한 선제적 시도”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기와 관련, “평양 당국은 4월로 예상되는 북한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의 새로운 회기 시작이나 한미 양국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 때와 시점을 맞춰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이벤트(미사일 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 혹은 (한미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는 북한이 내달 8일 제12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 4월초 임기를 시작한다면 이 때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초점을 과학과 기술혁신에 맞추고, 올해 신년사설에서 밝힌 대로 2012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강대국 진입의 문을 여는 정책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특히 보고서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 발사 실험도 제11회 최고인민회의 임기 개시와 일치했다고 상기시켰음.
- 보고서는 또 한미연합훈련시기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매년 3월에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을 최근 ‘더 강경한 대응조치를 초래할 도발행위’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음.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외교적 와일드카드(카드 게임에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패 혹은 만능패)’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지 혹은 발사하지 않을지 최종적인 결정은 대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견해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보고서는 “만약 북한 당국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이 보기에 미국이 현재 양자대화론 나올 준비가 안됐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의 길을 트게 된다는 계산하에 고의로 위험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 그동안 북한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를 보내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현재 접근법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 ● 김명길 “北 미사일 발사 예정대로 한다”(2/26)

-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한다”면서 “시점만 남았다”고 밝혔다.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넌 국제학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주최하는 ‘북핵 6자회담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 참석차 애틀랜타를 방문한 김 공사는 이날 회의장에서 연합뉴스 등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김 공사는 ‘미사일 발사를 예정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언제 발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점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로 서, 보편적 성격의 것이며, 우리는 자주적 권리행사를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미국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우리 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며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 실험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한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2주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발표한 입장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 ● “북한 전력 송·배전망 교체 55-75억불 소요”(2/26)

-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노후화된 송·배전망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55억-75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데이비드 본 히펠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샘 넌 국제학대학 및 부설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센터(CISTP)가 개최하는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관한 논문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 두 사람은 북한의 에너지 사정과 관련, “1990년 이후 산업 침체로 전력생산을 위한 제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특히 2005년 북한의 전력·석탄 생산과 석유 수입이 1990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2005년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1천640만t, 원유와 정제유 수입량은 각각 53만t과 41만t으로 집계했음.
- 또 북한의 역내 에너지원 생산과 수출입을 가감한 총공급량을 열량단위로 환산하면 1990년 1천694PJ(페타줄) 수준에서 2005년 642PJ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1PJ은 2만3천885t 정도의 석유가 낼 수 있는 열량). 다만 북한의 원유공급 상황과 관련해 1990년대 초반에는 공급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음.
- 헤이즈 소장와 히펠 연구원은 북한의 전력망은 현재 단일 전력망이 아니라 지역별로 단절된 전력망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부품 등이 노후화되어 전압 및 주파수 변동도 심해 송배전 손실도 큰 상태라고 지적한 뒤 전력망의 노후화는 석탄 탄광내 전기 및 펌프 가동에도 장애로 작용해 석탄생산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만 지난 95-96년 수해로 파괴됐던 수력발전소를 상당부분 복구했으며, 2000년 이후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력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美전문가들 北미사일 요격 신중론” <RFA>(2/26)

- 미국의 국방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시 요격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했다.
- 군사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 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상공을 지나 약 41도의 기울기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날아가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 미치지 훨씬 전에 지구 궤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 경우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영토 어느 곳에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사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기술적으로는 주일 미해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조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고 덧붙였다.
-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 요격할 개연성은 낮다”며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사후 대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요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했다’며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미국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도 25일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경우 동아시아의 위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美,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 3차례 요격실험”(2/26)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상정, 이미 3차례의 요격실험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25일 하원 군사위원회 회의의 전략군 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미사일 방어체계(MD)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제한적이고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알래스카에서 응전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차례 (요격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 같은 3번의 실험을 통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라일리 국장은 미국이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동시에 상공에 쏘아올리게 되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 “北인권 지독하게 나빠” <美보고서>(2/26)

- 미 국무부는 25일 북한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연방국, 이란, 짐바브웨, 미얀마, 베트남 등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국무부는 앞으로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하겠다고 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문제에서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길을 걸어나갈 것임을 천명했음.
-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인 구금으로 은둔 국가인 내부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고 말했음.
- 특히 “북한에서는 정권에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도가 있다”면서 “탈북자와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들과 반정부 인사들과 송환된 탈북자들을 처형했다고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인권 침해사례를 폭로했음.
- 보고서는 북한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인권침해 사례로 금강산 남한 관광객을 북한 경비병이 작년 7월 11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꼽기도 했음.
- 또 미중 양국관계에 뜨거운 감자인 인권문제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중 기간에 뒤로 밀려났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인권상황 악화도 이날 보고서에서 직접 거론됐음.
-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나쁘고 일부에서는 악화돼 왔다”면서 “(중국에서) 당국이 죄수들에 대해 탈법적인 살인과 고문, 강제자백, 강제노역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에서 사생활과 인터넷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음.

●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 의미” <WSJ>(2/26)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20년전 구 소련이 붕괴한 이후 북한이 추구해 왔던 도발의 양태를 재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
- 미국의 대표적 보수지인 이 신문은 이날 ‘북한, 선동가 역할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평양 당국의 다단계 로켓 발사 결정은 벼랑끝 전술과 협상의 순환고리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음. 신문은 외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 로켓은 미국 서부지역이나 유럽의 일부 지역에 까지 이를 수 있도록 개발된 신형 장거리 미사일이라면서, 미국과 북한 주변국가들의 정보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이 지난 1월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발사지역 준비 상황을 지켜보기 시



작했다고 전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정 배경과 관련해 신문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음.
- 또 WSJ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서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지난 10여년간 한국 정부가 평양에 거의 무조건적 지원을 했던 것과는 반대로 군축과 경제적 지원을 연계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 ● 美 25일 인권보고서 발표(2/25)

- 미국 국무부가 25일 전세계 각국의 지난 해 인권실태를 담은 “2008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처음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향후 오바마 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에 북한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됨.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5일 낮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오바마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밝혔다. 클린턴 장관을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음.

### ● “北위성발사도 유엔결의 위반”<미국무부>(2/25)

- 미국 국무부는 24일 북한의 위성발사 움직임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북한은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위협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활동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주발사체나 미사일이든 우주발사체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위한 일부 단계는 비슷하다”고 지적, 위성발사도 미사일 발사와 다름없는 유엔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음.
- 그는 이어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비핵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협박과 위협은 지역안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의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이날 성명을 통해 “위성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 발사기술과 같은 것”이라며 “북한은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하며,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프랑스 외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 외신, ‘北미사일 발사 시사’ 촉각(2/24)

- 북한이 24일 자칭 시험통신 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고 발표함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의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고 보고 촉각을 세웠음.
-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북한의 이날 발표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발적”인 것이라고 평가한지 수일 만에 이날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북측 의도에 주의를 기울였음.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표는 북한이 동해안 미사일 발사기지에서의 활동을 처음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북측이 미사일 발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표는 발사가 임박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측이 지역 평화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6천700km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경우 처음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다고 의미를 밝혔다. 통신은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탄도로 경량화하는 기술은 가지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생화학 무기를 이들 미사일에 탑재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음.
-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대포동 2호나 로동미사일을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맞춰 발사할 수 있다고 예상했음. 통신은 4월 25일인 북한군 창건 기념일에 맞춰 발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AFP통신은 인공위성 대신에 탄두를 실을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이 된다는 한국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북측 발표에 대한 배경 분석에 나섰다.

### ● 美 북한 전문가 일행 방북(2/24)

-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 일행이 24일 방북 길에 올랐음. 이들의 방북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북·미간 민간 교류로 이들은 방북 기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 토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방북단에는 루이스 교수와 함께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핵군축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공동소장 등이 포함됐음. 외교 소식통은 이들이 6자회담 합의에 따



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변의 핵심 핵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지난해 6자회담을 통해 영변 핵심 핵시설 3개를 폐쇄하고 11개 불능화 조치 중 8개를 완료하는 진전을 보였음. 그러나 검증문제를 두고 참가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 2단계를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인 상태임.

### ● “WFP 대북지원 비축식량 고갈 위기”<RFA>(2/24)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마저 내달이면 비축식량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했다. WFP의 제니퍼 파멜리 대변인은 이 방송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초 620만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으나 지원식량과 자금의 부족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다가 한달 뒤 완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23일 현재 비축된 식량도 내달이면 바닥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WFP는 앞으로 수주이내에 식량배급 국제요원들을 다른 나라로 재배치하고 현장사무소를 폐쇄하는 한편 차량과 통신을 비롯한 장비들을 처분해야 할 형편이라고 파멜리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고갈되는 3월부터 햅쌀이 나오기 전 여름까지 춘궁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버티기 어려움다.
-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1년동안 50만t의 식량을 지원키로 하고 이 가운데 40만t을 WFP를 통해 배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식량의 배분상황을 감시할 한국어 구사요원의 북한 입국사증 문제로 북한 당국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WFP에 지원식량을 배정하지 않고 있음.

### ● “北미사일 명백한 유엔결의안 위반”(2/24)

- 미 국무부는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매우 빠른 시일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미사일 문제에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우드 부대변인은 “기존에 언급한 것 외에 북한에 대해 새롭게 전달할 사항이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음.
- 우드 부대변인은 이날 비무장지대 부근에 특수군 병력을 증원했다는



북한군의 최근 동향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이 자리에서 비상계획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더는 언급하지 않았음. 한국의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비병(특수전) 사단을 추가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비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 특수전 병력 6만여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음.

#### 다. 중·북 관계

##### ● 北中 화물선 충돌…중국 화물선 침몰(2/28)

- 북한과 중국 화물선이 27일 밤 11시40분(현지시각) 중국 산둥(山東)성 룡청(榮成)시 앞바다에서 충돌해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으나 선원 20명은 모두 구조됐음.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28일 중국 화물선 ‘안성지류(安勝吉六)’호가 룡청시 리다오(俚島) 부근 해역에서 북한 화물선 ‘춘지2’호와 충돌한 뒤 물이 새 침몰했다고 보도했음.
- 웨이하이(威海)시 해사국은 안성지류호가 충돌 직후 침몰하고 있어 선원 20명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2척의 구조선박과 인근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선원들을 전원 구조했음. 이번에 중국 선박과 충돌한 북한 화물선 춘지2호는 북한 천지해운공사 소속으로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북한 남포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음.

##### ● 北 “中, 고위급 왕래.협력 강화 제의”(2/28)

- 자칭린(賈慶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리광호 당 중앙위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고위급 왕래와 각 부문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통신에 따르면 자 주석은 지난 25일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중국·북한)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는 것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밝혔음. 그는 올해 양국 관계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방식을 탐구하며 새로운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기 바란다”면서 “올해 ‘중조 친선의 해’ 행사를 통해 두 나라 관계가 가일층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음. 그는 양국간 “고위급 왕래를 밀접히 해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과 경제무역협조, 두 나라 당, 정부, 군대, 사회단체 등 각 부문의 교류와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의 협조, 국제문제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
- 특히 그는 “두 나라 영도자들의 상호 내왕은 쌍무관계 발전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편리한 시기에 김정일 총비서 동지와 조선 당, 정부 지도간부들의 중국 방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인공위성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술적 측면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서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것은 북한의 변명에 불과하며 인공위성이든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배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조만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키로 했음. 유 장관은 “양국은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6자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함으로써 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올해 초 양국간 무역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지난해 교역수준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음.

#### ● 韓中, 北 미사일 대응방안 논의(2/2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음.
- 유 장관은 이날 베이징 다오위다이(釣魚臺)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배”라면서 “북한이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조태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전했다. 양제츠 부장은 이에 대해 “오늘 북한 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보도 내용을 주의깊게 봤다”면서 “각측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 유 장관은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북핵 검증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핵 검증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부장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북한을 의식한듯 “각측이 냉정한 자세를 갖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층의 상호 방문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양국 의회간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첫 한중 전략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채널로서 적극 활용키로 했음. 아울러 양국 정상간 합의된 한중간 발전방안 공동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키로 하고 청소년간의



상호 방문 및 교류도 강화키로 했음.

- 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기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음.

#### ● 中, 北미사일 발사 예의주시(2/24)

- 중국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취(馬朝旭) 신임 대변인은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마 대변인은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 또 중국이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음.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4일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우리 정보당국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 북한, 작년 대중무역액 적자 최대(2/23)

- 23일 중국 해관과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27억8천만달러로 2007년 19억7천만달러에 비해 4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북한의 대중 수출은 7억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29.7% 증가했지만 대중 수입액은 20억3천만달러로 2007년에 비해 46%나 급증, 북한의 대중 적자는 12억8천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북한의 적자 규모는 2004년에는 2억1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 5억8천만달러, 2006년 7억6천만달러, 2007년 8억1천만달러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광물자원의 비중이 54.7%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 등 기계류가 다수를 차지했음. 북한의 대중 무역규모와 적자폭이 한꺼번에 커진 것은 각종 원자재값이 상승한데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국들로부터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라. 일·북 관계

##### ● 日방위상 “北미사일 요격 이전부터 검토”(2/27)

-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7일 북한이 자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이를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용해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번 일(북한의 발사 준비)과 관련된 동향이 아니라 이전부터 검토



해왔다”고 밝혔음. 그는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해 이번 북한의 발사 준비와 관계없이 MD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우선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미사일(SM3)로 요격하고 만약 여기에서 실패할 경우 지상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이 추가 요격에 나서는 방식.

#### ● “日, 대포동미사일 자국 향할시 요격검토”(2/27)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일본쪽으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용,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 요격은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이용하게 된다. 요격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이 됨. 다만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총리실과 관련 부처간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음. 해상자위대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인 곤고호(2007년), 초카이호(2008년)를 배치했음.
- 항공자위대도 2007년 3월에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 PAC3를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4곳에 배치했다. 지난 26일에는 기후(岐阜)기지에도 배치했음.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우선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선 해상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게 되며 여기서 요격에 실패할 경우 지상의 PAC3에서 추가 요격에 나서게 됨. 일본 정부는 2003년 각료회의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음. SM3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곤고호, 초카이호 외에 2개 함정에 추가로 배치될 예정. PAC3도 2010년까지는 도쿄 등 전국 16곳에 배치됨.

#### 마. 기타

#### ● “北, 억류 러시아 화물선 석방”<VOA>(2/27)

- 지난 17일 북한 무수단곶 근처 동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러시아 화물선이 26일 풀려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관영 ‘리아(RIA) 노보스티’를 인용, 27일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는 청진 주재 러시아영사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선박 옴스키-122호 화물선이 26일 오전 9시께 풀려났다”고 보도.
- 러시아영사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인 선장과 선원 15명에게 사과했으며, 선박 소속사인 아무르해운의 대변인은 북한이 평양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억류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옴스키 122호는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준비작업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무수단리 인근 해역을 통해 러시아로 향하다 북한 해군에 억류돼 김책항에서 조사를 받았음.

#### ● **獨인론 “北노동당 김정일 뇌졸중 공지”(2/27)**

- 북한 노동당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사실을 간부들에게 공지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6일 보도. 이 신문은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도쿄발 기사에서 소식통을 밝히지 않은 채 “조선노동당은 수일 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지난해 8월 뇌졸중에 대해 간부들에게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병세를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생모의 고향인 회령을 찾은 데 이어 수일내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최북동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 신문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을 둘러싼 움직임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2007년 9월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시설을 해체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한편 북한에 식량 및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하는 비핵화 2단계 로드맵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는 이같은 합의가 부분적으로만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클린턴 “보즈워스 韓·日·中·러 파견”(2/27)**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특사로 임명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가 내주초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낮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즈워스 특사를 6자회담 당사국인 이들 4개국에 파견, 핵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인 6자회담의 재개문제를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보즈워스 특사는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핵확산은 물론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문제를 다뤄나가게 될 것”이라며 “보즈워스 특사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북한을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클린턴 장관은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고위급 대화를 촉진하고,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보즈워스 특사의 4개국 순방에는 조지 부시 전 정부 시절부터 북핵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성 김 북핵특사가 동행하며, 회담결과는 클린턴 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특사의 순방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한



한, 일, 중, 러 정부와의 공동대처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美 조지아대 내주 북한포럼 개설(2/25)

- 미국 조지아대학(UGA)이 최근 핵문제와 로켓 발사 움직임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내주부터 시작. 조지아대 부설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 박한식 교수)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주 애선스시(市)에 있는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는 관료와 언론인 및 학계인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집중 전수하고 토론하는 2차 ‘북한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미국 주요대학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외교정책 등 북한체제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예로, 작년 4월에 이어 두 번째. 포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 문제 전문가 5명이 강사진으로 참여. 우선 미국 내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가 참여하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빈 한국문제 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에 다년간 체류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해 강의.
- 하젤 스미스 전 영국 워릭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유엔 인권국 고문과 2년동안 북한에 체류한 경험 등을 토대로 인도적 지원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양태에 관해 강의하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노르딕 아시아연구소의 게이트 헬게슨 선임연구원은 덴마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자문과 북한의 개발과 변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한 강의를 맡았음.
- 포럼 개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한식 교수도 북한을 40차례 이상 방문하며, 북한측 고위인사들과 대화 및 교류를 계속해온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관해 강의. 박 교수는 이어 “포럼이 끝나는 대로 1, 2차 포럼에서 이뤄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에 관한 총괄적인 책을 내어 일반인들도 포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프랑스 “北 위성발사준비, 유엔결의 위반”(2/25)

- 프랑스 정부가 24일(현지시각) 북한의 ‘광명성 2호’ 위성 발사 움직임과 관련,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했음.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위성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 발사기술과 같은 것”이라며 “북한은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하며,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프랑스 외무부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4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해 대포동 2호 발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음.

### ● 조선펀드, 5천만달러 대북투자 유치 추진(2/24)

- 대북투자펀드인 ‘조선펀드(ChosunFund)’가 5천만달러 규모의 대북 투자 유치에 나섰다. 조선펀드 설립자인 영국인 사업가 콜린 맥아스킬(69)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선펀드가 광산,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북한 파트너들과 합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맥아스킬은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 경영기술이 부족하다면서 1987년부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 정부의 제재로 국제 은행들에 예치된 북한 돈이 동결된 뒤 대북투자 펀드 계획을 접었으나,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자 다시 대북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영국의 개발도상국 전문투자사인 ‘파비엔 픽테트 앤 파트너스’도 북한과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남북교착상태 극복 희망 요소는 미국”<러전문가>(2/23)

- 현재의 남북간 신경전이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발적 충돌의 위협은 점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발전은 동북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RAC)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 과장이 주장했다.
- 23일 노틸러스연구소의 온라인 정책포럼에 따르면 보론초프 과장은 ‘남북 관계 악화, 어디까지 가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정세를 이같이 진단하고 그러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러한 남북관계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직접대화 용의는 “현(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보론초프 과장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집권이 한국의 뉴 라이트들 사이에 우려를 낳음으로써, 행정부에 대해 친미 노선을 택하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 그는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악화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여러가지 기본적인 특성에서 부시 행정부가 첫 6년간 추구했던 대북 정권교체 정책을 되풀이하는 대북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그는 “(남북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성공한 남쪽 형이 가난한 북쪽 아우에게 비핵화, 개방, 인권에 관한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도와준다는 개념”이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북한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 이슈에 비핵화 요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역할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미국방부 아·태 차관보에 그렉슨 지명(2/2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윌러스 그렉슨 예비역 해병대 중장을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음. 그렉슨 지명자는 미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전쟁대학을 졸업한 뒤 해병대에서 복무해왔으며 국방부 장관실 아·태정책국장을 거쳐 주일 해병대사령관(2001~2003년), 태평양해병대중앙사령관(2003~2005년) 등을 지내 아시아 및 한반도 사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는 퇴역한 뒤 미국 올림픽위원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고, 2006년부터는 'WCG & ASSCIATES 인터내셔널'의 외교정책 및 군사 컨설턴트로 일해왔음. 그는 지난 2006년 미군 퇴역장성들이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퇴임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을 때 이에 동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로버트 게이츠 장관 - 윌리엄 린 부장관 - 미셸 플라워노이 정책차관 - 윌러스 그렉슨 아태 차관보 등으로 라인업을 이루게 됐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짐 밀러 '새로운 미국 안보센터(CNAS)' 선임 부소장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에 지명하고 마이크 돈리 공군장관, 제임스 클래퍼 정보담당차관, 마이클 비커스 특수작전 및 저강도분쟁 담당 차관보를 유임시켰음.

#### ● 한미외교장관, 전화로 北미사일 협의(2/2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7일 전했다. 두 장관은 26일 오전 1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진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재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진지 6일만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클린턴 장관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의 방한계획도 전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6자 장관급서 ‘동북아안보원칙’ 채택 추진(2/23)

-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 기본원칙’을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 당국자는 23일 “기본원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양해가 이뤄졌다”면서 “합의가 이뤄지면 채택은 최소한 6자 수석대표나 각료급 회의를 열어 채택돼야 한다는게 우리나라 의장국인 러시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평화안보 기본원칙 채택을 위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6자는 지난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3차 회의를 열고 러시아측이 제안한 ‘기본원칙’ 2차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가 3차 초안을 작성해 5월까지 회람시키기로 했다”면서 “3차 초안 회람 뒤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번 회의기간 북측과 별도 접촉은 없었지만 휴식시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우리측이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거나 북측이 도발하는 일은 없었다”고 소개했음.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허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정태양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었음.

● DJ-오바마 “한미관계 발전” 서신 교환(2/23)

-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최근 서신을 교환했음.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 등에게 축하 서신을 보냈으며 최근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고 최경환 공보비서관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답신에서 “양국이 우정과 평화의 정신 아래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클린턴 국무장관 부부는 최근 르완다 여성들이 만든 전통공예 품인 ‘평화의 바구니’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내왔으며, 첨부 메시지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세계빈곤퇴치 등을 위해 발족한 기구인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GI)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고 최 비서관은 전했다. 이 밖에 김 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아키히토(明仁) 일왕,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교황 베네딕토 16세 등 세계 주요 인사들로부터도 새해 연하장을 받았음.



### ● 韓美FTA 심의위해 해결할 문제 조사(2/23)

- 미국 하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룰 세입위원회가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의회 심의를 위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22일 확인됐음. 세입위는 그러나 한미 FTA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청문회 개최 계획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아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심의·상정이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음.
- 찰스 랑겔 세입위원장은 하원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운영위원장과 정부개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111회 회기(2009~2010년말) 중 세입위원회의 청문회 및 활동계획을 보고했음. 랑겔 위원장은 공문에서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돼 계류중인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를 의회가 고려하기 위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특히 한미 FTA와 관련, 제조업 및 농업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적시했음.
- 그동안 미 의회내 민주당 인사들은 한미FTA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일각에선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문제를 한미 FTA 문제와 연관시키기도 했음. 랑겔 위원장은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음.
- 무역 문제에 대한 전체 상임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랑겔 위원장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제111회 의회의 우선과제와 국제무역과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USTR이 적절한 재원을 갖고 있는 지 등을 포함해 2009, 2010년에 대통령의 무역관련 제안을 토의·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음.

### 나. 한·중 관계

#### ● 柳외교, 내일 방중..北미사일 집중협약(2/23)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는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음. 유 장관은 25일로 예상되는 양제츠 부장과의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중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 유 장관은 또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역시 대북특사로 자주 파견되는 왕이 주임 등과 면담, 북한내 분위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됨. 유 장관은 특히 방중기간 후진타오 주석 또는 원자바오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유 장관의 방중에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수행할 예정.

#### 다. 한·일 관계

##### ● 김현희-다구치 가족 면담 이달은 힘들듯(2/23)

-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와 그의 일본인 교사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다구치 야에코씨 가족 간의 면담이 이달에는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의 면담이 추진중에 있으며 날짜와 장소는 현재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장소와 일정이 모두 미확정”이라며 “면담이 이달 내에 이뤄지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양측의 만남이 이달 말께 한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라. 미·중 관계

##### ● 中-美, 베이징서 군사회담 재개(2/27)

- 지난해 10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중국과 미국간 연례 군사회담이 27일부터 이틀간 열림. 중국 국방부는 이날 베이징에서 데이비드 시드니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와 중국 국방부 외사관공실 당국자가 국방정책조정회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군사당국자 간의 첫 번째 정책회담으로 양국 군사당국자간 관계 복원, 한반도 정세, 해적소탕 공조 문제 등을 협의함.
-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와 양국 군사관계 복원 등 핵심 관심사를 놓고 미국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10월3일 미국이 대만에 64억6천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키로 결정하자 중국 내정과 국가안보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군사회담을 전면 중단했음.

##### ● 中, 美 인권보고서에 반발(2/26)

- 중국은 미국 국무부가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발했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6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무슨 면목으로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음.
- 중국 외교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방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때마다 “각국은 상호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비판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2008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연방국, 이란, 짐바브웨, 미얀마, 베트남 등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음.
-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기록이 여전히 나쁘고 일부에서는 악화돼왔다”면서 “(중국에서) 당국이 죄수들에 대해 탈법적인 살인과 고문, 강제자백, 강제노역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에서 사생활과 인터넷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음. 지난해 3월에도 미국 국무부가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라며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맹공을 가했음.

#### 마. 미·러 관계

##### ● 美-러 외교장관, 北미사일 전화논의(2/28)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여겨지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음. 이날 전화는 클린턴 장관 쪽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이날 통화는 전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클린턴 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 외교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클린턴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진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들은 또 최근의 양국 관계와 내달 1~2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가자지구 재건 국제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무부가 전했다. 클린턴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가자지구 재건 회의 때 처음 대면하게 됨.

#### 바. 중·일 관계

##### ● 日-中, 범죄자인도조약 체결 협상(2/27)

- 일본과 중국은 범죄자를 상호 인도할 경우 그 대상자와 절차를 정하는 범죄자인도조약 체결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 양국은 복역 중인 외국인을 모국으로 이송하는 수형자이송조약과 병행해 실무자 협의를 개시, 연내에 합의를 이끌



어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양국은 오는 28일 중국을 방문하는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간 회담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지난해 수사협력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형사공조조약을 맺은 바 있어 이로써 사법분야의 연대가 한층 진전될 전망이다.

- 범죄인인도조약은 상대국으로 도피한 용의자를 모국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 한국 2개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 또 수형자이송조약은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를 모국에서 복역토록 하는 것으로, 일본이 2국간 조약을 맺기는 처음.

#### ● 中, 日 외상 28일 방중 발표(2/24)

- 중국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나카소네 일본 외상이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이틀간 방중한다”고 말했다.
- 나카소네 외상은 방중기간 양 부장과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갈등을 빚고 있는 дя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북핵 문제 등 동북아시아 정세 및 금융위기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사. 기타

#### ● 한·이라크, 바스라유전 공동개발 합의(2/24)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민 방한중인 질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이라크 석유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는 남부 바스라 지역의 유전개발과 우리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연계하는 총 35억5천만달러 규모의 사업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스라 지역의 유전개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대신 이라크의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주요 SOC 건설에 참여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이라크 정부가 전후 복구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중·남부 지역 유전·가스전 개발 입찰과정에 우리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 지방정부간 추진중인 유전개발 및 SOC 건설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바그다드 정유공장 사전설계 프로젝트, 제2차 발전기 구매계약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우리 업체의 참여 지원 등을 요청했다.
-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풍부한 시공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도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이에 탈라바니 대통령은 한국과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주요 SOC 사업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우리측의 협조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탈라바니 대통령은 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르빌 지역에 주둔했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의 평화정착 및 재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스웨덴 외교장관 26~31일 방한(2/23)

- 칼 빌트 스웨덴 외교장관이 한·스웨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6~31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음. 빌트 장관은 방한 기간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한승수 총리 예방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
- 27일 열리는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및 과학기술협력 증진 방안과 한·스웨덴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등 양자현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이 두루 논의됨.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올해 하반기 EU 의장국을 맡을 예정.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